

POWERY TREND

정책동향

산자부, 부품소재 신뢰성향상 추진계획 확정발표

산업자원부는 국산 부품·소재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출전략화를 위하여 신뢰성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총 366억원 규모의 「2004년 부품·소재 신뢰성향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04년도 지원내역은 한국기계연구원 등 8개 분야의 18개 신뢰성평가센터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270억원,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신뢰성향상지원에 65억원, 신뢰성선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등에 10억원, 신뢰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에 17억원, 전문기술별 신뢰성향상 표준매뉴얼 제작·보급에 4억원이며, 그동안 00년도 부터 03년까지 총 1,040억원을 신뢰성인프라 구축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금년도 지원대상 품목으로 수출이 유망한 전략적 핵심 부품·소재 100개를 신뢰성 평가 대상품목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신뢰성향상 장비·인력이 부족한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신뢰성 향상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 2004년도 전력산업 핵심기술개발에 1,171억원을 투자

산자부는 2004년도에는 전력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에 작년 보다 151억원 증액된 1,1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발전 대형화와 대용량 수송을 위한 전력공급 안정화기술에 422억원, 전력품질 향상과 설비개선을 위한 전력시장경쟁력강화기술에 332억원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저감과 신재생전력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친화전력기술에 269억원, 아직 개발초기단계이나 향후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미래핵심전력기술에 14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한 과제발굴과 병행하여 전문가들의 장기간의 연구기획을 통한 과제발굴을 강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최근의 국제 환경규제와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신재생 전력기술을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전력기술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 올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계획 확정

올해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에 모두 12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산업지원부는 지난 2일 자본재시제품이나 첨단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부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융자지원 대상 및 규모는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에 800억원,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에 300억원, 신기술보급사업에 100억원 등이다.

자금융자조건은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기간에 금리는 4.87%(올 1/4분기)이다.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 변동되고 대출가능금액은 소요자금의 80%이내(최대 50억원)다.

산자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수요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 취급기관을 줄여 운영 경비 등을 절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년도 지원자금의 70.8%인 850억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술개발능력을 가진 전문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다.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은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6년 시행 이후 2003년 말까지 9923개 과제에 2조 6133억원을 지원했다. 그 중에서 2001년까지 7532개 품목의 개발이 완료됐다.

산자부, 오는 3월 주택용 등 전기요금 인하

오는 3월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 등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주택용 요금은 전기소비량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과도한 누진제 개선을 위해 주택용 1, 2단계를 통합, 누진 단계를 7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배수는 현 18.5배에서 11배로 축소해 2.8% 인하키로 했다.

1, 2단계 통합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요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1~70kWh 사용자는 조정요금의 35%를, 71~100kWh 사용자는 조정요금의 15%를 할인키로 함에 따라 월 100kWh이하 주택용 소비자 263만 가구가 평균 12%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전설비(변압기)설치비 주민부담으로 원가대비 요금부담이 높은 고압요금은 1.5% 인하된 저압요금보다 높은 5%의 인하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20%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반용 요금은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용보다 큰 폭인 3.5%인하키로 했으며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용에 대해서도 3% 인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일반용 3000kW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제도를 일반용 1000kW이상으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이번 조정에서는 동결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의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